

## 농 득 마잉 베트남 서기장을 위한 만찬사

존경하는 농 득 마잉 서기장 각하, 그리고 귀빈 여러분,

3년 만에 서울에서 각하를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각하와 일행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각하께서 서기장에 취임하신 2001년 이후 베트남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8%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하고 있고, 수출도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베트남에 투자하려는 나라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저도 두 차례의 방문을 통해 베트남의 활기 넘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내년부터 유엔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등 국제적 위상 또한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도약을 이뤄 가고 계신 각하의 지도력과 베트남 국민의 역량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서기장 각하,

올해로 수교 15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교역이 수교 당시보다 열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우리나라가 베트남의 제1의 투자국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와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협력도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지난달 북한을 방문해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와 6자회담의 진전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표해 주셨습니다. 2주 전 유엔 총회에서도 남북정상회담 지지 결의안 채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더 큰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곧 있을 세계박람회 개최국 선정에서도 대한민국 여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각하와의 정상회담은 양국 간 실질협력을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이 추진하는 여러 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확대된다면 한 차원 더 높은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귀빈 여러분,

서기장 각하의 건강과 베트남의 발전, 그리고 우리 두 나라 국민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합니다.

건배!